

보문종 제5대 종정 혜일 대종사 입적

2월 28일 전주 정혜사에서 영결식 봉행



영결식에는 금산사 조실 월주스님, 완주 송광사 주지 도영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범광스님,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스님, 장의위원장 보문종 총무원장 범종스님, 계인문도회장 재운스님, 문도대표 지섭스님과 상좌와 신도 등 400여명이 참석해 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보문종 총무원장 범종스님은 영결사에서 "스님께서는 동진출가하여 청정한 계행과 칼날 위를 걷는 불퇴전의 수행정진으로 승가의 귀감이 되었고,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는 온유한 자비심으로 후학과 대중을 계도해 오신 훌륭한 사표이셨습니다. 또한 사재를 흔쾌히 출연하시어 재단법인 보문종 설립과 보문사 중창에 진력을 하시는 등 종단과 한국불교의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기신 스님은, 격동하는 근현대의 한국불교를 울 관계 지켜온 산 증인이기도 하셨습니다"고 혜일 대종사의 업적을 회고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도 사회부장 범광스님을 통해 "스님은 이 시대의 수행자이자 진정한 스승"이라며 조계종단을 대표해 애도의 뜻을 전했다. 영결식 이후 스님의 법구는 전주 승화원에서 다비식을 봉행했다.

49재는 3월4일 초재를 시작으로 4재는 3월25일 보문종 총무원이자 본산인 서울 보문사에서 봉행된다. 전주 정혜사=김종열 기자

우리나라 최대의 비구니 종단 대한불교 보문종 제5대 종정 혜일스님이 26일 새벽 원적에 들었다(세수 94세, 법랍 79세). 불교총지종은 27일 인선동리원장 직무대행, 서강 총무과장이 전주 완산구 효자동 정혜사를 방문 조의를 표했다. 삼일운동일 일어난 1919년 기미생으로 전북 전주에서 태어난 혜일스님은 1934년 전주 정혜사에서 명주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같은 해 미국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박한영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를 수지했다. 1945년 정혜사 불교전문강원 대학교를 졸업하

고, 금강산 유점사와 언양 석남사, 정혜사 선원을 비롯해 제방선원에서 30안거를 성만했다. 구족계는 1964년 정혜사에서 국묵담 스님을 계사로 수지했다. 1951년 완산선원 선원장과 보문종 제7대, 8대, 9대, 10대 총무원장을 역임하고, 전주 완산불교회관을 건립하고 전북불교대학을 운영했다. 2005년 대한불교 보문종 제5대 종정에 취임한 스님은 사회복지사업에 전력을 다해 2007년 정혜사 부설 복지시설 상량정도마을을 건립하는 데 불사를 이루었다.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 동국대 경찰행정학 박사학위 취득

경찰공무원 조직적 종교 활동 참여 활발, 보수·승진만족 높아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은 '경찰공무원의 종교 활동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동국대에서 경찰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월도 스님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찰조직 내에서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교 활동적인 정책을 계속 연구해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월도 스님은 논문에서 경찰공무원의 종교 활동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 경찰공무원 4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설문조사 결과

조직적 종교 활동의 참여가 활발할수록 보수만족과 승진만족의 수준이 높았다. 이에 반해 객관적 종교 활동의 참여가 활발할수록 업무만족의 수준이 낮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스님은 '종교활동과 직무만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본문에 종교는 존재론적 불안을 줄이고, 삶의 문제들에 의미와 희망과 목적을 주어 정서적 복지를 가능케 한다. 또한, 광범위한 상황적 심리적 마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적응력과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찰공무원 조직내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현인·성인·선·악·부처님 자리에 이르러서는 한 덩어리”

월정사 동안거 해제법회 및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 다례제

“일체 현인이니 성인이니 하는 선과 악은 한이 없지만 부처님 자리에 이르러서는 한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탄허스님 육성법문 중〉

조계종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남)에서는 동안거 해제날인 2월 24일(일)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 다례제 및 동안거 해제법회”를 선방 스님과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이날 해제법회 법어는 故산스님 초청으로 1981년 미국 고승대법회 때의 육성법문으로 대신했다. 육성법문에서 탄허스님은 “우리가 우주삼라만상 속에서 차별은, 어떻게 정의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지만 허공자리에 앉아서 불

가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일체 현인이니 성인이니 하는 선과 악은 한이 없지만 부처님 자리에 이르러서는 한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명심견성, 마음을 밝혀가시고 성을 본다”고 말했다. 스님은 “마음이 라면 총체적인 면모를 성이라 할 것 같으면 한덩어리가 된다. 마음의 본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법문했다.

정남스님(월정사 주지)은 인사말에서 “모든 대중이 함께 결제해서 실한 수행으로서 한 철을 잘 보냈다”며 “열심히 수행하신 덕분에 연꽃을 피워내고, 이 불타는 사회와 역사속에 태평가를 불러서 온통 세상이 태평가 소리에 흥겨운 한마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탄허스님의 수행일화집 ‘방산굴의 무영수’를 부처님전에 봉정하는

봉정식을 가졌다.

간행사에서 정남스님은 “탄허스님의 고매하고 위대한 뜻을 계승할 것을 발원합니다. 탄신 100주년을 기해서 스님의 족적, 가르침, 사상, 지성, 고뇌, 영향 등을 채록했다”며 “증언집 ‘방산굴의 무영수’를 봉정하오니 굿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발원했다.

*탄허스님은

한국불교 중흥조 경허대선사의 선택을 이은 한암스님의 제자로서 선수행과 대강백으로 명성을 떨쳤다. 또한 스님은 1960년 현도역해 〈육조단경(六祖壇經)〉, 1963년 〈보조법어(普照法語)〉, 1975년 〈신화영결합론〉, 1982년 〈주역선해(周易禪解)〉를 간행했고 저서로는 〈부처님이 계신다면〉 등이 있다.

진각종 종립 위덕대 2012학년도 학위수여식

박사 10명, 석사 99명 등 615명에게 학위 수여



이 한 마디가 여러분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이라면서 “도전없이 성과가 없으며 도전하는 젊은이만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진정한 젊은이”라고 강조했다. 서 총장은 또 “졸업생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해 뛰어난 역량과 도전정신, 그리고 성실성으로 주위의 인정을 받게 되면 그것이 바로 위덕대가 명문대학으로 인정받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각종 총무원장 혜정 정사는 축사에서 “오늘 졸업생 여러분은 스스로 축하를 하고 축하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며 “사회에 진출하기 앞서 스스로의 능력에 감사하고 가족에 감사하고 스승에 감사할 때 이 사회,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회당학원 이사장 혜명 정사는 격려사를 통해 “지금까지 학교라는 울타리 속에서 갈고 닦은 실력들을 사회 속에서 펼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졸업의 영예는 끝이라는 의미보다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미가 크다”며 “졸업생 여러분들은 대학의 자람이며 보람이다. 소중한 인연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위수여식에서는 학부 전체 수석을 차지한 선찬미(유아교육과)씨가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장상을 수상했으며, 설립종단인 진각종 총인상은 구자용(불교학과)씨, 총무원장상은 박소연(사회복지학과), 강세라(일본언어문화학과)씨가 각각 수상했다. 공로패는 김상석(경영학과 박사), 황동섭(사회복지학과 박사), 양명봉(교육학과 석사), 김대영(사회복지학과 석사), 김필례(교육학과 석사), 배용재(최고경영자과정), 윤병운(최고경영자과정)씨가 받았다.

사진협조=밀교신문

진각종 종립 위덕대학교는 2월 20일 오후 2시 교내 정진관(대학체육관)에서 201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갖고 학사 470명, 석사 99명, 박사 10명, 최고경영자과정 36명, 불교지도자과정 7명 등 총 615명의 학위자를 배출했다.

위덕대 정교실장 범주 정사의 집전으로 열린 예감불사에 이어 학사보고, 학위수여 및 시상, 총장인사말, 격려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 제14회 학위수여식에서 서남수(교육부장관 내정) 총장은 식사를 통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지식을 내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더 높은 수준의 지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들만이 더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며 “대학 졸업은 공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만큼 졸업 후에도 계속 배우는 자세로 살아갈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 총장은 이어 “도전하라! 또 도전하라!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개천사 무명씨	2/13	10,000
개천사 강순시	2/14	10,000
개천사 정경택	2/22	20,000
관성사 황성녀	1/29	10,000
관성사 경관	2/22	19,500
관성사 인선	2/25	20,000
기로대관	2/25	10,000
기로대자행	2/25	10,000
기로밀공정	2/25	10,000
기로법수원	2/25	10,000
기로법장화	2/25	10,000
기로법지원	2/25	10,000
기로불멸심	2/25	10,000
기로사홍화	2/25	10,000
기로상지화	2/25	10,000
기로수증원	2/25	10,000
기로총지화	2/25	10,000
단음사 법연지	2/18	10,000
덕화사 하순옥	2/13	5,000
덕화사 문성호	2/22	20,000

덕화사 문성열	2/22	20,000
밀인사 정정희	1/30	5,000
백월사 김강미자	2/1	10,000
벽룡사 무명씨	2/3	10,000
벽룡사 무명씨	2/3	10,000
벽룡사 양정현	2/20	10,000
벽룡사 양지현	2/20	10,000
삼밀사 서령	1/28	10,000
삼밀사 오혜민	1/28	10,000
선립사 심지장	2/15	10,000
성화사 우담바라회	2/13	40,000
수인사 김봉기	1/29	10,000
승천사 원봉	2/4	10,000
승천사 지선행	2/4	10,000
시법사 선도원	2/25	10,000
실지사 류승태	2/25	10,000
운천사 이성미	2/4	50,000
정각사 김문수	1/28	10,000
정각사 구정희	2/8	20,000

정각사 김문수	2/20	10,000
정각사 박용휘	2/21	10,000
지인사 승효재	2/4	10,000
총지사 유성열	1/29	10,000
총지사 김성민	2/20	30,000
화음사 강순란	1/29	5,000
화음사 무명씨	2/15	10,000
흥국사 지경	2/4	20,000
진평	2/13	5,000
김갑선	2/19	10,000
최영례	2/20	10,000

1월26일부터 2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함에 소속회원명을,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불교의 선정 16

사념처 수행



화령 (중앙교육원장)

몸의 부정을 관찰하여 아집을 제거한다

사념처 중의 신념처 중에서 부정관이라는 것이 있다. 부정관을 통하여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수행에 기초이므로 이것을 감로문(甘露門)이라고도 했다. 붓다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수행방법이 있었다. 하나는 앞에서 설명한 안반념(아나빠나 사띠)이고 또 하나는 바로 이 부정관이다. 이 둘을 두 가지의 감로문이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불사(不死)의 경계에 들어갈 수 있는 신비스러운 방법이라는 의미이다. 지금까지도 이 방법은 남방불교, 즉 상좌부불교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수행법이다.

부정관이라는 것은 몸의 부정함을 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몸에 대한 집착을 벗어날 수 있다. 즉, 우리의 신체가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관찰함으로써 신체에 대해 싫어하는 마음을 내게 되고 나아가서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몸에 대해서도 혐오의 마음을 내게 되어 집착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몸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면 궁극적으로 아집을 끊을 수 있다. 우리가 탐심과 진심을 내게 되는 것은 '나'와 '나의 것'이라는 데에 대해 집착을 함으로써 좋은 것은 취하려고 하고 싫은 것은 배척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라는 것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이며 무상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면 몸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고 그로 인해 탐심과 진심을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도과(道果)를 성취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부정관은 모든 수행법문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이다.



부정관 (不淨觀)

우리몸의 혐오스러움을 관찰 하는 법

두 가지의 부정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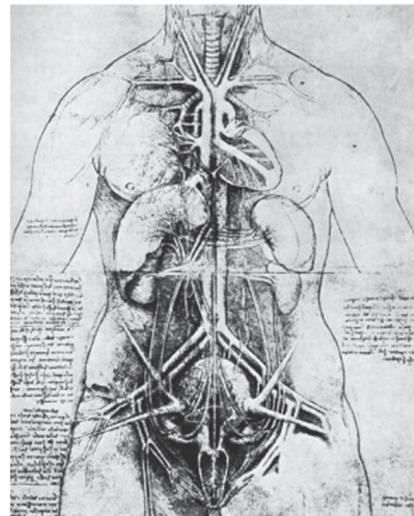
부정관은 관조하는 대상에 따라서 유식부정관(有識不淨觀)과 무식부정관(無識不淨觀)으로 나누어진다. 유식부정관은 자기의 신체나 타인의 신체가 부정함을 관하는 것이고 무식부정관은 시체의 여러 가지 더러운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유식부정관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대념처경》에서는 부정관에서 관찰해야 할 신체의 각 부분을 31가지로 들고 있다. 즉 머리칼·털·손톱과 발톱·치아·피부·살·근육·뼈·골수·공팍·심장·간·늑막·비장·폐·장자·장자막·위에 든 음식·똥·담즙·가래·고름·피·땀·지방·눈물·피지·침·땀·관절

기 때문에 달리 힘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관찰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말하자면 몸의 더러움을 제대로 알고 들여다보듯이 밝게 알며 그것이 자연스레 몸에 붙어 끈이 살피려고 하지 않아도 그 더러움을 절실히 느끼고 알게 된다는 의미이다.

5시(時)의 더러움을 관하는 것

몸의 더러움을 관하는 방법 중에는 몸 자체의 더러움을 관찰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더러움을 관찰하는 방법도 있다. 즉, 아침에 일어나서의 모습과 샤워를 했을 때의 모습, 병이 났을 때, 대소변을 볼 때, 그리고 몸의 아홉 구멍으로부터 오물이 흘러나올 때 등을 관찰하여 몸



우리가 신체의 더러움을 살피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몸은 물론 타인의 몸에 대해 탐내고 집착하는 마음을 끊어 지혜를 밝히기 위한 것

액·오줌 등이 그것이다. 어떤 경전에는 이것 이외에도 32가지나 36가지 등을 들고 있어 일정하지는 않다. 요컨대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살펴 더러운 것을 관찰하는 것이다.

우리 몸의 혐오스러운 모습을 관찰하는 것을 《대념처경》에서는 양 쪽 주둥이가 있는 곡식자루로서 비유하고 있다. 곡식 자루 안에 여러 가지 곡식이 담겨 있어 이것을 열어 보면 눈이 좋은 사람은 쌀인지 곡인지 구분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그렇게 보고 관찰대상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자기의 몸이나 다른 사람의 몸을 볼 때에 그 더러움을 확실히 알게 된다. 그래서 "유지유견, 유명유달(有知有見, 有明有達)"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라는 것은 자기의 몸이나 다른 사람의 몸을 볼 때에 그 더러움을 아는 것이고, '견'은 신체에 대해 그것의 여러 가지 더러움을 본다는 것이며, '명'은 신체에 부정하다고 관찰하는 것을 잃지 않는 것이며, '달'은 신체의 부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느끼

의 더러움을 살피는 것이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곱이 붙어 있고 침을 흘린 자국이 있고 머리가 부시시하며 입에 냄새가 나는 등의 모습을 보고 몸에 대해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샤워를 했을 때 냄새 나고 토하는 등의 모습을 보고 몸의 더러움을 살피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병이 났을 때의 모습에서 더러움을 찾는 것인데 누구든지 병이 나면 얼굴과 몸이 초췌하고 눈이 흐리며 대소변을 흘리기도 하고 고름이 나거나 냄새가 나서 혐오감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에서 몸의 더러움을 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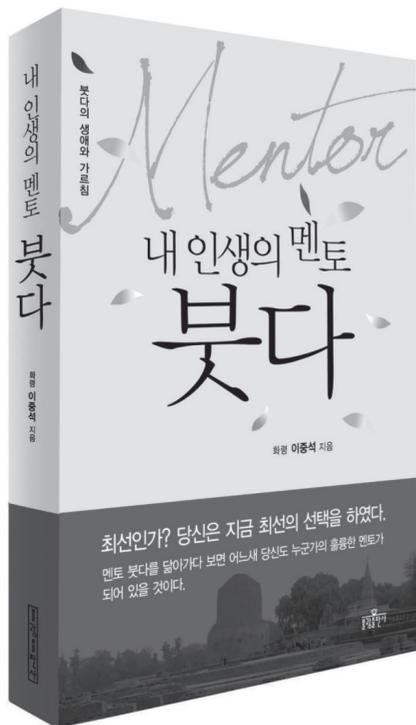
네 번째는 대소변을 보면서 몸의 더러움을 관하는 것이다. 아무리 미인이라도 대소변 보는 모습은 별로 아름답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흘러나온 대소변은 아무리 미인의 것이라 해도 결코 보고싶지는 않을 것이다.

다섯 번째는 우리 몸의 9개의 구멍으로부터 오물이 흘러나

오는 것을 관찰하고 몸의 더러움을 깨닫는 것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대소변과 콧물, 침, 땀, 귀지 등등을 보고서는 누구든지 구역질을 하게 된다.

우리의 몸은 이처럼 많은 오물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 곁을 싸놓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몸을 가꾸며 끝없이 애착한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아름답다고 자부하면서 한껏 컷대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잘난 척한다. 자신의 몸 뿐만 아니라 이 공간에는 서로의 몸을 탐착하여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러한 오물덩어리를 서로 가지겠다고 싸움이 일어나 살인까지도 하게 된다. 부정관을 통하여 이런 어리석음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예를 든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신체의 더러움을 살피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몸은 물론 타인의 몸에 대해 탐내고 집착하는 마음을 끊어 지혜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몸의 더러움을 잘 인식함으로써 몸에 대한 애착이 끊어진다. 그로 인해 파생되는 수많은 괴로움을 단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로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행해진 이런 방법들을 통하여 수행자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스스로를 단속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고려 대장경 천년의 해, 한국인이려면 반드시 불교를 알아야 한다.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

최선인가?

당신은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하였다. 삶을 변화시키는 인류의 영원한 스승 붓다와 만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 달라진다.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들 곁에는 붓다가 있었다. 당신도 붓다를 닮아간다면 다른 사람의 훌륭한 멘토, 세상을 바꾸는 존재가 될 것이다.

화령 이종석 지음 432면 | 18,000원

내 인생의 멘토 붓다

충지동의보감

요실금 중년여성의 고질병에서 탈출하자!



조선화 원장
(여성美 한의원)

남모르는 속살이로 고생하고 계신 건 아니지요? 이전 속시원히 털어놓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셔도 될 텐데..... 출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중년 여성이나 노년층 등 전체 성인여성의 40% 이상이 가지고 있다는 대표적인 여성질환 중에 하나인 '요실금',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병은 아니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신체활동은 물론 정신건강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고질병이다.

요실금이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소변이 새는 배뇨현상으로 중년에서 많이 나타나고 노년층으로 갈수록 점차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인데 최근에는 30대 젊은 층에서도 스트레스, 비만 등 내적, 외부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보통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방광근육이 비대해지고 방광벽이 두꺼워져서 그 기능에 점차 떨어지면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임신과 출산 등으로 골반근육과 방광이 쳐지거나 폐경기 이후 요도와 방광의 혈관들이 위축되는 중요 요인이다. 또한 생리적으로 남성에 비해 짧은 요도길도 요실금의 발병과 무관하지 않다.

혹 자궁근종이나 자궁선근증, 자궁내막증 등의 자궁질환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자궁을 비롯해 간이나 신장 등 생식기능이 약해지면서 대소변의 장애와 요실금 등 기능적인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한방에서 보는 요실금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천적으로 신기(腎氣)가 허약하여 방광과 주변생식력이 약해져 발병하는 경우.

둘째, 평소 하복부가 냉하거나 하체가 약해 방광을 결속력을 저하는 경우.

셋째, 반복적인 출산과 수술, 유산, 폐경으로 방광을 비롯한 자궁, 요도, 골반근육이 이완되어 발생하는 경우.

넷째,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정신적으로 과도한 긴장상태를 통해서 기혈의 흐름이 원활치 못해 방광 및 소변배출기능이 무력해질 경우

요실금의 한방치료는 우선 하복부에 위치한 방광, 자궁 및 장 등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운을 보강하며 혈액순환을 돕고 정신적인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약해진 간, 심장, 신장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보중약기탕, 옥미지황탕, 신기환 등의 처방을 활용한다.

또한 외치법으로 사상자, 익모초, 속 등의 약재를 끓여 기운을 질 내로 쏘여 주거나 세정을 하는 좌훈욕과 한방좌약 등을 이용하여 질 내에 삽입함으로써 수축력과 방광 및 생식기능을 회복하는 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상승시킨다.

요실금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요실금의 발생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소 꾸준한 골반 근육운동을 실시하고, 일정한격으로 소변보는 습관을 가지며, 알코올, 카페인 함유 제품 등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을 멀리하고, 요실금 유발의 또 다른 요인인 변비 예방을 위해서 충분한 수분과 섬유질을 섭취하고, 마지막으로 비만방지를 위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본인 스스로가 요실금을 병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능동적 자세가 요실금으로부터 해방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불자생활법률

상가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된 3개월 후 보증금증액 요구한 경우

저는 부산 소재 김씨 소유 상가건물을 6,0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임차하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김씨는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증금 2,000만원을 더 올려주지 않으면 가게를 비워 달라고 합니다. 지금은 장사가 잘 되는 때라 점포를 그냥 비워 주자니 아까운 상황인바, 사람들 말로는 약정기간이 만료하여도 임대인으로부터 재계약조건에 관한 아무런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자동갱신된 것으로 보아 계속 점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의 요구 등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임대인이 제1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기간에 관하여 같은 법 제9조는 "①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조는 "①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공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불자변호사 하동길 변호사의 생활법률이 시작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를 매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풀어갑니다.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되,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볼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갱신된 임대차기간 1년을 주장하거나 해지통고 할 수 있는 반면 임대인은 갱신된 임대차 존속기간 중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한편, 상가임대인의 증액요구권은 청구 당시 보증금의 12%를 초과할 수 없을 것이므로 720만원 한도를 인정해주고 임대인에게 위 범위 정한 일정한 갱신거절의 정당사유가 없는 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즐겁게 만드는 건강 요리

콩나물 해장국

콩나물 해장국은

한절기에 몸이 으슬으슬하고 감기기운이라도 있는 듯 할 때, 콩나물 해장국 한 그릇을 땀 흘려가며 비우고 나면 몸이 개운해진다. 이것은 콩나물의 습기와 위장에 쌓인 열을 풀어주며, 땀을 잘나게 하고 몸이 결리고 근육이 뒤틀리며 아픈 것을 치유하는 효능 때문이다.

재료 준비(3~4 인분)

콩나물 200 g, 배추김치 1 컵, 대파 1/4 대,

청양고추 1 개, 홍고추 1, 달걀 2 개, 김(채로 썬) 약간, 밥 2공기.

콩나물 양념; 다진 마늘 1 작은 술, 참기름 1/2 작은 술, 깨소금 약간

김치 양념; 다진 마늘 1 작은 술, 설탕 1/2 작은 술, 참기름 1/2 작은 술

새우젓 양념; 새우젓 2 큰 술, 고추 가루 1 큰 술, 마늘 1 큰 술, 참기름 1 작은 술

멸치 육수; 멸치 한 줌, 다시마; 사방 5 cm 크기 2 장, 물 1.5리터

조리 방법

1. 멸치 육수가 끓으면 콩나물을 넣고 살짝 데쳐서 채로 건져 둔다.

2. 콩나물을 다진 마늘, 참기름, 깨소금을 넣고

무친다.

3. 김치는 송송 썰어서 다진 마늘, 설탕, 참기름을 넣고 무친다.

4. 뚝배기에 밥 1 공기를 담고 데친 콩나물과 김치를 넣은 후, 멸치 육수를 부어 끓인다.

5. 김치가 익으면 어슷썰기 해 둔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고, 새우젓 양념을 넣어 한번 더 끓인다.

6. 간이 고루 어우러지면 채 썬 김과 달걀을 얹어 마무리한다.

기타 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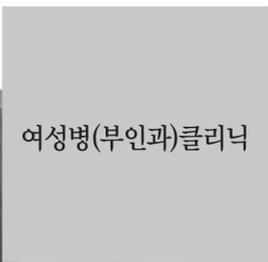
콩나물 해장국을 완성한 뒤 깨소금을 얹으면 고소한 맛이 더해지고, 고추 가루나 후추를 뿌리면 얼큰함이 더해진다. 편집 정리 =백지순 위원



저주파 치료기



혈액 분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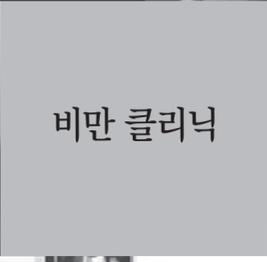


여성병(부인과)클리닉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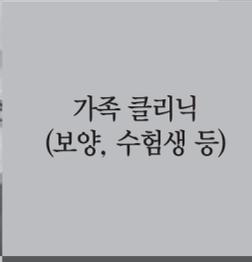
좌훈욕기



비만 클리닉



온열 전기침



가족 클리닉 (보양, 수험생 등)



자동팔강진단기



저주파 치료기

언제나 열린마음으로 상담해드립니다

문의 & 상담
02) 545 - 0072

온라인 상담
www.women119.co.kr

여성美 한의원

진료 과 목

1) 비만클리닉

여성 : 자궁 다이어트
남성 : 복부 다이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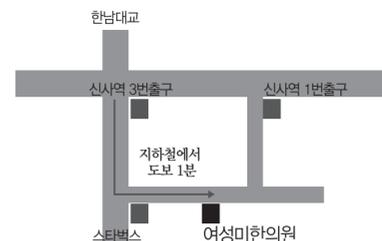
2) 여성병(부인과)클리닉

월경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생식기병 : 장궁근증,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임신병 : 불임, 임신오제(입덧), 임신중독증 등.
산후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기능성 좌약 요법 (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3) 가족클리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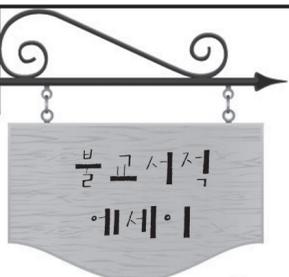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

오 시 는 길



진료시간

평일 9:30~18:30
주말 9:30~16:00
점심시간 13:00~14:00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다

<그곳에선 나 혼자만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곳에선 나 혼자만 이상한 사람이었다》(정신세계사)는, 미국인 여의사 말로 모간이 호주 원주민 '참사람 부족'과 함께 사막을 4개월간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깨닫고 배운 길 기록한 책이다. 명상서적 전문 번역가 류시화씨가 우리말로 옮겼다.

호주 내륙 사막을 무대로 생활하는 참사람 부족은 텔레파시로 의사를 전달하고, 뱀이나 파리의 알도 먹을 수 있고, 부러진 다리도 하루 만에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문명사회에 속한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 얘기들이었다. 또한 이들은 마땅한 집도 소유하지 않고, 그날 먹을 음식은 그날 구해서 먹고, 또 구하지 못하면 굶으면서도 행복해하는 사람이었다. 한 마디로 소유와 집착을 떠난 사람이었다.

문명이 과학을 발달시켜 오는 동안 참사람 부족은 직관을 키우면서 살아 왔다. 특히 병을 치료하는 장면은 인상적이었다. '물수집가'라는 이름을 가진 원주민이 바위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었는데 이 남자는 하루 만에 완전히 나아 서 걸어 다닐 수가 있게 됐다.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에 버금가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들의 치료

과정은 의외로 간단했다.

먼저 주술사가 상처는 건드리지 않고 손을 아래위로 움직였다. 이 동작은 뼈가 원래의 건강했던 상태를 기억하고 돌아가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주술적인 행위를 하였다. 물론 다친 사람도 주술사나 치료사와 함께 자신의 뼈는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믿음을 갖고 그 메시지를 계속 빼에게 보냈다.

이렇게 해서 나았다면, 우리의 관점에서는 확실한 기적이고, 믿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능의 1할 밖에 쓰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믿지 못한다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신을 자연의 일부로 생각하던, 단순하고 순수했던 고대인들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하늘을 향해 간절하게 비를 뿌려 달라고 기도하면 비가 내렸었다. 그들에게는 '실마 비가 내릴까, 이렇게 기도해도 안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의심이 하나도 없었다. 기도를 하면 비가 내린다는 믿음이 확고했기에 이런 종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중요한 건 '믿음'이었다. 삶에서 '믿음'이 얼마나

나 중요한가를 이 책은 일러주고 있었다. 믿음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믿음은, 세상은 나에게 우호적이라는 믿음이라고 이 책은 강조했다. 이 둘 원주민은 모든 존재는 나에게 이로운 존재고, 내가 맞닥뜨린 세상은 나에게 우호적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런 믿음은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파리에게도 해당됐다.

당신은 텅빈 파리가 해롭고 나쁜 존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당신한테는 그것들이 해롭고 나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당신의 이해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파리는 실제로는 꼭 필요하고 이로운 생물입니다. 파리는 우리의 귀속으로 기어올라가 우리가 밤에 잠자는 동안 귀속에서 들어간 모래와 귀지를 없애 줍니다. 우리 청각이 완벽할 걸 아시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99페이지)

사막에서는 텅빈 파리가 수만 마리씩 몰려다니는데, 이들 파리가 몰려와서는 순식간에 사람의 몸을 뜯 하나 남기지 않고 덮어버렸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눈을 감지럽게 하고 콧속으로 기어올라가고, 귀속에서 돌아다니는 파리 때문에 거의 미칠 지경이 돼버린다. 하나 파리는 걸

코 해로운 존재가 아니라 자신에게 지금 이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마음을 그렇게 먹고 파리에게 몸을 맡겨버리면 그 순간이 그런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미용사가 머리를 손질할 때의 그런 느낌 일 뿐이라고 저자는 말했다. 중요한 건 대상에 대한 믿음이었다.

우리 문명이 이성을 발전시켜오는 동안 이들 참사람 부족은 직관을 계속 키워왔다. 그래서 참사람 부족의 생활방식이 생소하고 낯설기도 했다. 문명사 몇 천 년을 고스란히 땅에 묻어버리고 그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면에서도 현대인보다는 고대인의 의식에 더 가까운 것 같은 참사람 부족.

중요한 건 이들이 행복하다는 것이다. 고도로 발달한 문명과 이성을 발달시켜온 우리보다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이들이 훨씬 행복해 보이는 것은, 물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그리 큰 것은 아니라는 뜻이라고, 물질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잃고 살아가는 지도 모른다는 뜻으로 이해했다.

자유기교가 김은주

깨달음에 이르는 불서

《붓다의 행복 교과서 만화 백유경》

삶의 지혜와 인생의 교훈을 주는 재미있는 불교만화

글·그림 김흥인 | 컬러 | 170쪽 | 비움과 소통 권



이 책은 현대불교신문을 통해 김흥인 작가가 연재한 내용을 한편의 단행본으로 묶었다. 대학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한국일보 디자인실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김흥인씨의 이번 작업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또 한번의 도전이었다. 『백유경(百喻經)』은 『백구비유경(百句譬喻經)』, 『백구비유집경(百句譬喻集經)』, 『백유집(百喻集)』이라고도 한다. 5세기경 인도의 비구 상가세나(Saghasena·僧伽斯那) 스님이 여러 대승경전 가운데서 100가지의 비유를 가려 뽑아 편찬한 경전으로 492년 상가세나 스님의 제자 구나브리디(Guavddhi·求那毘地)에 의해 한문으로 번역되었다.

모두 4권으로 구성된 『백유경』은 본래 100가지의 우화를 모은 것이었지만 후대에 2가지가 소실되고 현존하는 경전에는 98가지 비유로 편집되어 있다.

이 경의 구성은 먼저 상가세나 스님이 가려뽑은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려 준 다음, 이것이 우리 생활에 어떤 의미이며 무엇을 경계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유경』은 상가세나 스님이 애초에 이 경전을 초학자

나 일반 대중에게 쉽게 불교를 일깨우기 위해 편찬했기에 어렵지 않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주 재미있고 쉬운 비유를 들어가며 이해하기 어려운 붓다의 교설(敎說)을 풀이해 자연스럽게 독자들로 해탈(고통의 소멸·완전한 행복)의 세계로 유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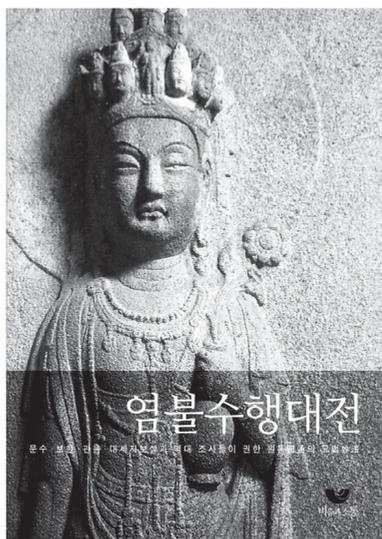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선악에 따른 인과응보에 관계된 비유를 주로 모아놓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백유경』에서 높은 교리적·철학적 내용을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경전 가운데서 비교적 이해하기 쉽고 수행이나 일상생활 속 교훈이 될 만한 내용들을 묶어 엮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백유경』은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오히려 더 좋은 경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백유경』은 내용도 짧은 단행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부담 없이 읽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격언집·명상록 같은 성격의 경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른들에게는 삶의 지혜와 인생의 교훈을 주는 '행복교과서'로, 청소년들에게는 참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지침서'로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염불수행대전』

대승경전과 정토종 및 선종 조사의 염불법문 총망라

주세규 회집(역음)/808쪽/비움과 소통 권



이 책은 '염불'에 관한 불보살님과, 역대 고승, 수행거사들의 말씀을 모아서 해설하거나 주석(註釋)을 단, 무려 808쪽에 달하는 이른바 '백독책'이다. 염불, 그중에서 부처님의 이름을 생각하거나 부르는 지명염불(칭명염불)에 관한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과 고승들의 고귀한 말씀들을 회집(會集)해 놓은 책입니다.

성인(聖人)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많은 종교에서 널리 권장하고 있는 보편적인 수행법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성인 중의 성인이자 인간과 천상의 스승으로 받들어지는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가장 성스럽고 불가사의한 수행법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염불은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는 낮은 수행법으로 치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저자는 이러한 편견을 버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염불수행을 하여 극락에 왕생할 수 있게 하고자 이 책을 회집하게 되었다 한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염불에 관한 주옥같은 말씀들 중에서 핵심을 꿰뚫으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말씀들만 엄선하였다. 중생들이 이해하기에 어렵고 고차원적인 말들은 과감히 배제

하였다. 다만 본문 밑에 달린 주석들은 본문보다는 다소 어려운 말들도 과감히 실었습니다. 본문과 직접 관련된 말은 물론이고, 본문과는 다소 동떨어진 내용이라 하더라도 불교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 놓았다.

특히, 이 책에 나오는 염불 법문의 원문(原文)은 인터넷 중국 사이트에 들어가 직접 찾아낸 것임을 밝혔다. 한문으로 된 원문을 신는 것이 염불을 공부하시는 여러 불자들에게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을 했기에 최대한 많이 원문을 실었다.

『염불수행대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I 편은 '염불'입니다. 염불의 정의와 정명의 뜻, 염불의 역사, 불가사의한 염불의 공덕과 수행법, 대승경전과 역대 조사들의 정토법문이 치밀한 주석과 함께 총망라 되어 있다.

II 편은 극락왕생의 조인(助因)이자 조행(助行)이라 할 수 있는 '육식,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방생은 최고의 선법(善法)/ 사음(邪淫)만은 하지 말자'이다. 비유하자면, 염불이 우리 몸의 3대 영양소인 단백질·지방·탄수화물이라면, 조인인 육식금지과 방생과 사음경계는 비타민/미네랄/섬유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날이 갈수록 팽창하고 있는 육식 문화의 심각한 폐해와 부작용을 알리고, 더 나아가 육식이 얼마나 큰 악보(惡報)를 만들어 내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또 날이 갈수록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정신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인 사음(음란)의 죄악이 과연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사음을 경계하는 글들을 모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숨을 거둘 때다. 임종하는 순간의 마음가짐이 내생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장례문화는 잘못된 것이 무척이나 많다. 망자(亡者)에게 도리어 해를 끼치고 원통함만 가중시키는 잘못된 장례문화가 만연하고 있다고 한다. 이 책에서는 사람이 임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가르침들이 들어 있다.

또한 저자는 불교는 기독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살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공자와 노자는 누구인지, 진정한 수행자들에게 왜 질병이 찾아오는지, 세상은 왜 갈수록 혼탁해지고 살기 힘들어지는지, 많은 죄악을 지은 사람이 참회하면 용서되는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인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인지 차근차근 풀어 나간다.



불교총지종 본산 '총지사' 서원당



불교총지종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종.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심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서원합니다.

월초불공

1월28일~2월3일 오전10시
3월4일~3월10일 오전10시

자심일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불교충지중

충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충지중보

2013년 3월 5일

음력 1월 24일

월간 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충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57년 제160호

전국사원 상반기 49일 불공 입제 국가의 안녕과 자녀 잘되기 서원

불교충지중은 2월 19일 전국 사원에서 총기 42년 상반기 49일 불공에 들어갔다.

서울 충지사(주교 법등정사) 서원당은 총기42년 상반기 49일 불공에 동참한 스승과 교도 모두가 진호국가불사와 자녀 잘되기 서원에 한 마음을 모았다.

충지사 주교 법등정사는 설법을 통해 "상반기 49일 불공은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고 자녀 잘되기 불공을 병행해야 된다.』며 원정 대성사께서 제정하신 충지중의 특별기도 중의 하나입니다. 충지중의 모든 스승과 교도가 일치단결하여 49일 동안 정

진해야합니다. 또한 수행 기간 중에는 계율을 지키는 것 뿐 만이 아니라, 정진에 방해가 되는 장소의 출입을 삼가고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다 같이 서로를 경책하며 불공에 임합니다."며 입제에 드는 교도들의 마음을 다잡았다. 49일간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참회와 자성(自省)의 시간을 되기 바란다.

〈진호국가불사〉의 진언은 "음흉야호사"이다. 이 진언불사 출처는 종조 원정 대성사가 밀교경전인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근거했다. 의례의 정립은 총기8년(1979년) 4월 26일 춘계강공회에서 제정되

었지만, 이미 1975년부터 진호국가불사의례를 시행했었다. 내용은 나라발전, 국태민안, 조국평화통일을 기원한다. 이 호국 불사는 1년에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49일 동안 행한다. 또한 총기20년(1991년)부터 종령 특별 유시로 자녀가 잘 되어 나라의 큰 인물로 만들기 위한 자손 불공이 시작되었다.

상반기 49일 불공은 4월 8일(양력)에 회향된다. 회향일의 의미는 부처님오신날이 음력 4월 8일이지만, 종단은 이를 양력으로 정했으므로 8일에 마친다. 충지사는 김중열 기자

『불멸심(不滅心)기로스승』 종단발전기금 삼천만원 기탁

안성정사를 통해 통리원에 전달



▲ 불멸심 스승님 대신 발전기금을 전하는 안성정사와 통리원장 직무대행 인선정사

봉투 속에는 종단 발전에 써달라며 3,00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있었다. 자리를 함께하고 있던 법상인 사감원장 이하 감사위원 전원은 "종단이 어려운 위기를 잘 헤쳐 나가라는 부처님의 법문이다."며 모두가 합장 정례하였다. 인선 통리원장 직무대행은 "스승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종단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며 불멸심 전수님의 고귀한 정신을 되새겼다.

불멸심(不滅心)전수는 평생을 무쇠처럼 단단하게 오롯이 수행과 교화에만 전념한 충지중 스승의 사표(師表)이다. 원정 대성사께서 입교개종의 큰 뜻으로 충지중을 창종할 때부터 함께하신 스승님은 근검절약을 스스로 실천하셨다.

1973년 의창선교부 주교를 시작으로 초대 중앙종의회 의원과 원의원, 사감부장, 대구경북교구장, 선임사, 건화사 주교를 거쳐 1987년 출세간위(지수)에 품수되었다. 스승님의 뛰어난 교화와 수행을 따르는 많은 교도들의 간절한 청원으로 두 차례의 연장근무를 더한 후에야 기로스승으로 진원했다.

통리원=김중열 기자

제43회 동해중 졸업식 봉행

영원한 『동해인』으로 21세기의 주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종립 동해중 제43회 졸업식 상장 수여식

총기42년 종립 동해중학교 졸업식이 2월 6일 오전 10시30분이 해오름관에서 봉행되었다.

졸업식에는 충지중 종립 관음학사 이사장 지성정사, 법선 학교법인 사무국장, 변 혁 총동창회 사무총장 및 학부모 내빈 약 500여명이 참석하여 3년간의 중학교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고등학교에 진

학하는 졸업생들을 축하했다.

이날 졸업식은 예전의 방식과는 달리 졸업생들이 제작한 동영상 상영을 통해 3년간의 추억을 회상하였다. 특히 졸업생 전원이 단상에서 교장 선생님께서로부터 직접 졸업장과 상장을 수여 받고, 이사장 지성정사로부터 격려를 받았다.

장재계 교장 선생님은 회고사를 통해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은 제가 학교장으로 취임하던 해 본교에 입학한 학생들입니다. 올해 졸업하는 여러분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자랑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2년 동래교육청 관내에서 성적 향상이 보통이상에서 1위, 기초미달 부분에서는 관내 2위를 달성하였으며, 이과 쪽으로는 부산과학고에 2명 부산인과학고에 3명, 문과 쪽으로는 부산외고 1명, 부일외고에 4명, 그리고 해운대고 1명, 북일고 1명이 합격했습니다. 특히 졸업생 전원이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고등학교에 전원 진학하였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어 이사장 지성정사는 축사를 통해 "졸업은 끝남과 동시에 시작을 의미합니다. 즉 새로운 세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 세계는 국제화, 개방화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온 세계를 무대로 하여 개인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지식, 정보화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세대입니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역량과 자세를 기를 때입니다."며 정보화 시대의 주역이 될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하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영예의 이사장 상은 임민규군이 수상하였고, 3학년1반 이광선외 3명이 불교충지중 장학금을 받았고, 총 21명의 졸업생에게 동창회 장학금 등이 수여되었다. 동해중학교는 1968년 3월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제43회 졸업생 174명을 더해 총 졸업생 17,140명이 졸업한 전국 최고의 명문 중립학교이다.

부산 동해중=김중열 기자

총기42년 2월 27일 불교충지중 통리원에서는 훈훈하고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 되었다. 통리원 정기 사무감사 위원으로 참석한 경주 국광사 안성정사는 인선 통리원장 직무대행에게 흰 봉투 하나를 전달했다. "경주에 계시는 불멸심 스승님께서 통리원에 올라가는 길에 전하라며 준 봉투입니다."는 말에 통리원장 직무대행 인선정사는 봉투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

통리원장 직무대행에 총무부장 인선정사 임명



불교충지중 효강 종령 예하는 현재 공식중인 통리원장 직무대행에 종헌, 종법에 의거하여 1월 29일자로 현재 공식중인 통리원장 직무대행에 인선정사를 임명했다. 통리원장 직무대행 인선정

사는 총기28년 한마급 대법사로 승직에 임직하여, 통리원 사무국장, 마산 운천사 주교, 사회부장, 총무부장 등 종단 주요 보직을 거쳤다. 김중열 기자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관행을 실천해 나갑니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

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弘布)합니다.

다섯째, 종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불교충지중 사회복지재단 위탁·경영 일원 어린이집

- 맑고 밝은 어린이
- 자율적이며 더불어 함께 크는 어린이
-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린이
- 이웃, 나라, 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



일원어린이집 : 강남구 광평로 3길 21 ☎ 02.495-3221

총기42년 총지중 종단 정기감사 2월 26~27일 양일간 통리원에서



▲ 통리원에서 열린 정기 사무감사

불교총지중 사감원(원장 범상인)은 총기 42년 종단 기관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시행했다. 감사에는 범상인 사감원장, 지공 사감부원장, 안성, 범우, 정원심 감사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정기감사는 총기41년 통리원, 유지재단, 사회복지 재단, 법장원, 밀교연구소가 진행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실시되었다. 감사위원들은 예산 집행 등 회계처리, 물자 구매계약의 적정성, 인사처리, 종무원 복지실태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해 중점적인 점검을 하였다. 감사결과는 다음 중앙총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통리원은 장동욱 계장

총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제142회 이사회 동해중 『기초, 기본능력 함양 학력신장 우수 학교』로 표창



▲ 142회 동해중 이사회 모습

지성정사의 주제로 원당정사, 선도원 기로스승, 강경중, 김무남, 정영문 이사 및 법선 학교법인 사무국장, 석동훈 행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이사회의 주요 안건은 2012학년도 법인 및 학교 추경예산 결산 심의와 2013학년도 법인 및 학교 예산 심의 및 승인이다. 이사회는 석동훈 행정실장으로 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이를 심의 의결하였다. 이사들은 불교반과 파라미타 학생회의 통합운영방안을 모색해 볼 것을 권고하고 지난번 이사회 의결사항인 정관 개정을 문구 수정 작업을 거쳐 교육청에 재 상신 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12월 31일 동래구 오순인 교육지원청장으로부터 『기초, 기본능력 함양 학력신장 우수 학교』로 표창을 받은 교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동해중=법선 사무국장

학교법인 관음학사(이사장 지성 정사)는 2월 5일 동해중학교 법인사무실에서 제142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장

부산·경남교구 산악회 결성

2월26일 경남 의령 '자굴산'으로 첫 산행

부산, 경남 교구 (교구장 수현정사)는 스승과 교도간의 화합과 신교도 포교를 위한 산악회를 결성했다. 교구 소속 사원의 스승과 교도뿐만 아니라 등산을 좋아하는 일반 불자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 교구장 수현정사는 "이번 산악회 구성으로 교도들과 함께 대자연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또한 산악회의 문호를 개방하여 일반 불자들도 동참하여 교화 발전의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며 결성의 의미를 말했다. 산악회는 2월 26일 경남 의령 자굴산으로 첫 산행을 다녀왔다.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매월 전국의 명산으로 떠날 예정이다. 정각사=이상록 통신원



▲ 자굴산 정상에 선 부산·경남교구 산악회

불기 2557년 종단협의회 제49차 정기총회

사무국 명칭 사무처로 변경, 법화종 상임이사 종단 승인



▲ 제49차 종단협 정기총회 모습

창립회원으로 그동안 종단의 사정으로 이사종단으로 활동하다, 종단의 정상화를 기해 상임이사 종단으로 복귀를 희망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았다.

올해 제1차 이사회에서는 전년도 사업 결산 및 감사보고, 임원변경의 건 및 회비 미납 종단에 대한 조치 등을 심의했다. 임원변경의 건은 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보문종 총무원장 범종스님을 보문종 기획실장 급주스님으로, 일승종 총무원장 정태스님을 일승종 총무원장 혜정스님으로 변경을 승인했다. 또한 급년도 의견 순서를 발표하고, 총지중은 회장단 및 사무총장을 제외한 상임이사 종단으로 두 번째, 전체 종단에서 일곱 번째의 의견 순서를 확정했다.

AW컨벤션센터=김중열 기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는 2월 7일 AW컨벤션센터에서 제49차 정기총회를 봉행했다. 종단협 회장 자승스님 및 총지중 인선 통리원장 직무대행 등 회원종단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기총회에서는 정관개정안으로 '사무국을 사무처로 명칭 변경의 건' 및 '법화종 상임이사 종단 승인의 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무처로의 정관개정은 사무국에 처장스님이 임명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법화종은

일원, 초록 어린이집 신입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통리원장 직무대행 인선정사 총지중 소개



▲ 일원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 모습

초록어린이집(원장 황화성)이 2월 21각 각 신입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일원 어린이집 지하 강당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에는 총지중 통리원장 직무대행 인선정사와 총무과장 서강정사가 참석해 학부모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들었다.

통리원장 직무대행 인선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총지중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원생으로 입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교사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하는 재가종단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최고의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며 간단한 종단 소개와 지원 방안을 말했다.

하재희 원장의 설명으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은 어린이집의 시설현황, 교육방침, 교사소개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학부모들은 시설과 선생님들의 보육 방침을 듣고, 종단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도 받았다. 일원어린이집=김중열 기자

제33차 한일불교문화교류회 정기총회 개최

한일불교문화교류회(이하 교류회) 2013년 제33차 정기총회가 2월 7일 AW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불교총지중 통리원장 직무대행 인선정사와 자승 교류회 회장 등 주요 종단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정기총회는 전년도 예, 결산 감사보고, 정관개정, 임원변경, 급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등이 이루어졌다. 임원변경의 건에서는 종단 대표 및 부서장 교체로 부회장에 천태종 정산스님(전 총무원장)을 도정스님(신임 총무원장)으로, 조계종 보선스님(전 중앙총회회장)을 향적스님(현 중앙총회

의장)으로 변경하였다. 상임이사 변경은 일승종 신임 총무원장 혜정스님과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으로 각각 변경을 승인 했다.

2013년 사업계획으로는 제34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오는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충남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봉행하고, 제9차 한일불교여성교류대회를 10월 중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AW 컨벤션센터=김중열 기자

- 교훈 : 신의 · 성실 · 정직
- 교목 : 보리수



원대한 꿈을 갖고
실력을 연마하는
총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총지중 총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데스크칼럼

새 대통령께 바란다 화합과 소통으로 진정한 문화 강국이 되기를

편집장 김종열

지난 한해는 우리나라의 국운을 결정 짓는 중대한 선거가 두 번이나 있었다. 4월에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선거와 12월에는 대통령을 뽑는 총선이 이어졌다.

먼저 새로 취임한 대통령께 축하의 인사와 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한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다. 헌법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첫째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둘째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셋째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그만큼 국가를 책임지는 중책의 자리이다.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광복을 맞은 우리민족은 극단적인 좌·우 대립을 거쳐 나라가 분단되는 가슴 아픈 역사를 거쳤다. 강대국과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낳았다. 그 후에도 4.19혁명과 5.16을 거치면서 고도 경제성장 시기를 지나, 민주화의

힘난한 과도를 넘어 OECD에 가입할 정도로 선진국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정부는 아쉬운 점이 참 많은 정부다. 선진국으로의 진입과 중산층의 확대 및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약속하고 출범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이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등 국민의 합의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고 강행한 부작용의 상처는 지금도 남아있다. 평행선으로 치닫는 남북 관계는 북한의 삼대세습과 핵실험으로 영긴 실타래 마냥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직무를 어깨에 짊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대통령의 지혜로운 정치가 열리기를 바란다.

오늘은 불교인의 한사람으로 새 대통령께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한다. 매번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들이 가장 많이 내세운 공약이 국민 대통령이나, 대화합이다. 해방이후 이데올로기 분쟁으로부터 민주화 운동,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약속이

먼저였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화합보다는 분열을 이용한 정권유지에 급급했다고 본다. 늘어만 가는 빈부의 격차와 계층의 대물림은 우리 사회를 1%의 귀족이 지배하는 왕권 및 봉건적 역사로 되돌리는 무서운 결과를 낳을 것이다. 부디 정권을 창출한 세력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과 화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

둘째로 서민경제의 활성화이다. 골목과 시장의 상인들이 일할 맛이 가야한다. 대형마트의 무차별적인 공세는 동네 구멍가게의 추억 빼앗아갔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경제민주화의 실현만 잘 지켜주신다면 서민경제의 활로는 반드시 열릴 것이다.

세 번째로 문화 정책의 근시안을 버리고, 장기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시기를 바란다. 현재 동아시아에 위치한 한.중.일. 삼국은 독도나, 라오닝섬 등 해상영토분쟁이 한층 가열화 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역사왜곡정책인 '동북공정'의 계약도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우리 대중문화 즉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한류의 지원을 위해 많은 자금과 인원을 투입했다. 또한 많은 부가가치를 올린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중문화는 상업성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기를 바란다. 장사가 안 되면 어떤 한류도 받아들이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서양 대중문화의 기본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지금의 한류는 창조된 우리 문화라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우리 전통 문화와 역사를 화선지 배경으로 깔아두고 진정한 한류의 창작품을 그려내기를 바란다.

끝으로 공정한 종교정책을 펴기를 바란다. 지난 정부 초기에 있었던 정부와 불교계의 마찰은 종교라는 특수한 신앙체계에 대한 이해부족과 관료주의가 만들어낸 사건이었다. 이번 대통령께서는 불교계를 전통종교로서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주문이 아니다. 국민 누구에게나 종교의 자유는 있다. 그러나

인원으로, 사원이나, 교회의 숫자로 그 종교의 면면을 따지는 안 된다. 불교만 해도 많은 종단들이 있다. 대통령께서는 신도의 숫자뿐만 아니라 종교를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나눔의 정책을 펼고루 폐기를 바란다. 그러면 다문화사회에 이미 진입한 우리 후손들에게 다양한 종교문화가 잘 어우러진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남겨줄 것이다.

오늘 아침 일간지에도 새 정권의 순조로운 출발을 알리기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앞세우며 치열한 싸움을 하는 소식들로 지면은 채워졌다. 정치에서 '내일은 없고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우주 법계의 제불 보살님들과 국민들은 간절히 손을 맞잡고 화해하고, 협상하는 모습을 바랄 것이다. 부디 5년이라는 재임 기간 동안 따사로운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정을 펼치기를 비로자나 부처님 전 서원합니다.

진리의 여율

어찌하매 왕미라고 하는가

엄치왕이 니건자에게 물었다.
“대사님, 모든 왕들을 무슨 연유로 왕이라고 합니까?”
“임금님, 왕이라고 하는 자는 백성들의 부모입니다. 능히 법으로 중생을 거두어 보호하여 안락하게 하는 까닭에 왕이라고 합니다.
임금님, 왕은 백성 기르기를 어린 자식 기르는 것과 같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는 것은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성립되는 것이니, 민심이 불안하면 나라가 곧 위태롭습니다.
이런 까닭에 왕은 항상 백성 근심하기를 어린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하여, 마음에서 놓지 않고 항상 국내 인민의 괴로움과 즐거움을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순시하여 수해와 한재 또는 풍우를 알려, 풍작과

홍작, 늪은이와 어린이의 근심과 기쁨을 알고, 병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모든 구속된 자와 소송하는 자의 죄가 있고 없는 것, 죄의 가볍고 무거운 것을 알며, 모든 왕자와 대신, 모든 관리들의 공이 있고 없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 이렇게 안다면 백성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임금님, 나라 안의 일을 이렇게 알고 힘으로 보호하고 거느려서, 주어야 할 자에게는 때 맞추어 금여하고, 거두어 들어야 할 자에게는 잘 헤아려서 노역의 때를 알아 백성의 이익을 빼앗지 말며, 탐욕과 폭력을 엄숙하게 금하여 백성이 안락함을 얻도록 하면, 이것이 거두어 보고하는 자요, 그 이름을 왕이라고 합니다.
(니건자경)

국왕미 행할 다섯 가지

무릇 국왕이 된 자는 항상 다섯 가지를 행할 것이니, 그 다섯 가지란,
첫째, 만민을 영도하여 다스리되 범람함이 없는 것이며,
둘째, 장군과 군사를 기르되 때 맞추어 군량과 무기를 줄 것이며,
셋째, 본업을 생각하고 닦아서 혈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며,
넷째, 충신의 정직하게 간하는 말을 믿고, 아첨하는

말을 들어서 정직함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다섯째, 이 다섯 가지를 행하면 이름이 사해에 퍼지고 복덕이 저절로 따라 오지만, 이 다섯 가지를 버리면 아무런 기강도 서지 않고, 백성이 곤궁하여 반란을 생각할 것이다.
(법구비유경)

(열반경 고귀덕왕보살품)
정리= 최영아 위원



햇보리자 총지종108염주

보리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천은사 보리자이고, 모주는 패다라에 육합상을 조각했으며, 간주로는 천연 백수정 10개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패다라란 인도에서 종이 대신 글자를 새기는 데 쓰인 나뭇잎을 말하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나뭇잎에 새겨두었으므로 바로 경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나무 열매로 모주를 만들었기에 부처님 말씀을 늘 수지한 경전과도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패다라 모주 108염주로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패다라(貝多羅) : 經은 梵語로 수다라(sutra)라고 하는데 바로 번역하면 선. 관(線, 貫)이 된다. 이것은 곧 부처님의 말씀을 패다라 나무 잎에 써서 끈으로 엮었기 때문이다...



구입문의 : 전화 02. 552-1080-3 통리원 또는 총지종 각 시원 주교(총지종 교도에 한하여 1개당 ₩40,000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호국불교의 도선사와 산신신앙의 원당 삼천사

서울의 진산

북한산은 우리 가까이 있는 가장 웅장하고 그 산세가 깊다. 예로부터 백두산, 지리산, 금강산, 묘향산과 함께 대한민국 오악(五嶽)에 포함되는 명산이다. 세 봉우리인 백운대(白雲臺, 836.5m), 인수봉(人壽峰, 810.5m), 만경대(萬鏡臺, 787.0m)가 큰 삼각형으로 놓여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삼각산(三角山) 또는 삼봉산(三峰山), 화산(華山), 부아악(負兒岳) 등으로도 불린다.

고려시대부터 삼각산이라고 하다가 일제강점기 이후 북한산이라 불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서울의 진산으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중생대 말기에 지층에 파고든 화강암이 지반의 상승과 침식작용으로 표면에 드러났다가 다시 풍화작용을 받아 험준한 바위산이 되었다.

무학대사가 서울을 내려다 본자리?

주봉인 백운대에 오르면 서울 시내와 근교가 한눈에 들어오고, 맑은 날에는 강화도 등 황해의 섬도 보인다. 인수봉은 암벽 등반 코스로 인기가 높다. 봉우리 북쪽에 뛰어난 바위가 마치 아이를 업은 모양 같다고 하여 부아악(負兒岳)이라고도 한다.

고구려 동명왕의 왕자인 온조와 비류가 남쪽으로 내려와 자리잡고 살 만한 땅을 고를 때 이 봉우리에 올라 서울의 지세를 살폈다는 기록이 있다. 백운대의 남쪽에 있는 만경대는 주변 경관이 좋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예로부터 국망봉이라 불렀다.

무학이 나라의 도읍지를 정할 때 여기에 올라서 내려다보고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외에도 노적봉(716m)·영봉(604m)·비봉(碑峰:560m)·문수봉(716m)·보현봉(700m) 등 이름난 봉우리만도 40여 개나 된다.

조선시대 때 수도의 방어를 담당했던 북한산성, 비봉의 진흥왕 순수비 터를 비롯해 유명한 북한 이궁지(離宮址), 진관사·문수암·태고사·월효암·상운사(祥雲寺)·도선사(道詵寺)·승가사·화계사 등 많은 사찰과 문화유적이 산재한다. 서울 외곽에 있어 연중 등산객과 일반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1983년 도봉산과 함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오악사상



동·서·남·북 및 중앙지역을 대표하는 백두산·금강산·묘향산·지리산·삼각산(북한산)을 일컫는다. 오악의 개념은 중국의 오행사상(五行思想)에서 비롯되었으며, 오악에는 나라의 수호신(守護神)이 거처한다고 믿어 민족의 성산(聖山)으로 여겨 왔다. 신라 때에는 도함산·계룡산·지리산·태백산과 부악(父岳:지금의 팔공산)을 오악으로 삼아 제사를 지냈고, 고려 때에는 덕적산(德積山)·백악(白岳)·목맥산(木蠶山:지금의 남산)의 산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특히 백두산은 일찍부터 한민족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온 주주산(宗主山)으로서 조선 영조 때 망덕산(望德山)에 백두산단을 만들어 망제(望祭)를 지낸 일이 있다.

국가가도도량 도선사(道詵寺)

신라 경문왕 2년 862년 도선(道詵)대사가 창건한 사찰이다. 도선은 이곳의 산세가 1,000년 뒤의 말법시대(末法時代)에 불법을 다시 일으킬 곳이라고 예견하고 절을 창건한 뒤, 큰 암석을 손으로 갈라서 마애관음보살상을 조각하였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그 뒤 조선 후기까지의 중간·중수에 관한 기록은 전하지 않으나 북한산성을 쌓을 때는 승병들이 이 절에서 방편(防番:보초 임무)을 서기도 하였다.

1863년(철종 14) 김좌근(金左根)의 시주로 중수하고 칠성각(七星閣)을 신축하였으며, 1887년(고종 24)에는 임준(任準)이 오층탑을 건립하고, 그 속에 석가모니의 진신사리(眞身舍利)를 봉안하였다.

1903년 해명(慧明)이 고종의 명을 받아 대웅전을 증축하였으며, 1904년 국가기원도량(國家祈願道場)으로 지정받았다. 1976년 도선사의 중흥주인 청담(靑潭) 스님이 주지로 취임하여 당시 박정희 대통령 및 육영수 여사 등의 시주로 도량을 중수하였다. 이어서 호국참회원을 건립하고 불교의 평화 염원에 입각한 실천불교와 생활불교운동을 전개하였다.



호국참회원은 1977년 11월 15일에 완공한 종합포교 센터이다. 지하 1층, 지상 3층, 총 면적 1,000평의 콘크리트 한옥식 건물로, 법당·영사실·도서실·신앙상담실·수련원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문화재로는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4호로 지정된 석불이 있다.

'산신이 보좌를 튼 절' 삼천사

도선사와는 산의 반대편에 위치한 진관 외동의 삼천사는 신라 문무왕 원년인 661년 원효(元曉)대사가 창건하였다. 1481년(조선 성종 12) 편찬된 《동국여지승람》과 《북한지(北漢誌)》에 따르면, 한때는 3,000여 명이 수도할 정도로 번창 했다고 하며, 사찰 이름도 이 숫자에서 따오지

않았나 추측된다. 1592년(조선 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승병들의 집합소로 활용되었으나 이후 불에 타 없어졌다. 뒷날 이 절의 암자가 있던 자리에 진영화상이 중창하였다.



1950년 6·25전쟁 때 불에 탄 것을 1960년에 증축하고 1978년 성운스님이 중수했으며, 1988년 미안사에서 부처 사리 3과를 얻어와 석종탑을 세우고 모셔 두었다. 특히 산령각은 정면 2칸, 측면 2칸의 전통 건축양식인 맞배지붕으로 올해년에 개축하였다.

내부 중앙에는 산신과 호랑이를 그린 산신행화를 봉안하였는데 산신은 산의 영(靈)으로 산을 지키며 산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장하는 신으로 산신령(山神靈)이라고도 한다.

산의 주인으로서 늘 가람의 뒤쪽에 자리하며 불법을 수호(守護)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좌우에 각각 독성탱화와 칠성탱화를 봉안하고 있는데 다른 사찰과는 달리 나무에 새긴 목각탱화가 봉안되어 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삼각산의 산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음을 볼 수 있으며, 이런 이유에서 삼천사를 '산신이 보좌를 튼 절'로 부르기도 한다. 영험한 곳으로 소문이 나 많은 기도객의 참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편집 정리 = 김종열 기자.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사진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 전화문의 _ 불교총지중 통리원 02) 552-1080
각 사찰 주관부에 문의하셔도 구입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_ 우리은행 1005-480-047811
(계) 불교총지중 유지재단

1. 만다라 세트 (금강계 만다라 +태장경 만다라)

33cm X 33cm (액자포함)
30,000원



금강계 만다라 _ 金剛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서만다라고도 하는 이 만다라는 금강정경에 근거해 그려졌다. 중생의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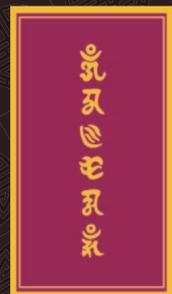


태장경 만다라 _ 胎藏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정확하게는 '대비 태장생 만다라'이다. 대일경에 근거해 그려진 이 만다라는 태아가 모태 속에서 생육되어 가는 것에 비유해 대일여래의 보리심이 모든 생성의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2. 가정다라니

46cm X 27cm (액자포함)
27,000원



가정다라니

가려졌던 독립운동가 운암 김성숙 - 태허스님



▲ 운암 김성숙 - 태허스님

최근 공영방송 KBS에서는 1,2TV를 통해 '한국의 유산-운암 김성숙' 이 방영되고 있다. 정식 다큐멘타리는 아니지만 프로그램 막간 팝업으로 인기가 높은 코너이다. 몇 장의 사진과 간단한 코멘트가 전부지만 운암 김성숙은 승려 출신의 위대한 독립운동가임을 확실히 전해준다.

스님이자, 항일 투쟁가, 사상가, 저술인, 대학교수 등 파란만장한 태허(太虛) 스님의 일생은 우리나라 독립투쟁의 역사와 맥을 함께 한다.

봉선사에서 수학하다 손병희 선생과 만해스님을 만나 항일무장투쟁에 투신했고, 해방 후에는 반이승만 정권 운동과 좌우합작 및 통일운동에 동참했다. 5.16 이후에는 군사정권에 반기를 들고 재야운동에 참여했다. 말년에 가난과 병고와 싸우다가 쓸쓸하게 인적하면서 그가 했던 말은 "무슨 상을 바라고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야" 였다. 어쩌면 평생을 은산철벽을 무너뜨려 도를 이루듯이 우리의 독립을 위해 끝은 한길일 것인 것은 아닌가?

독립운동을 하기위해 무작정 가출 그러나 부처님 법연이 먼저였다.

태허스님은 평안북도 철산(鐵山)의 농가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 이름은 성숙(星巖), 아호는 운암, 성숙은 법명이다. 자식이 없어 고심하던 그의 어머니는 미륵부처님께 3년간 기도를 하고 스님을 얻었다. 어린 스님은 농사일을 도우며 틈틈이 글방에 나가 한문을 배웠다.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 전국 곳곳에 독립학교가 설립됐다. 스님의 고향 철산에도 대한독립학교가 세워진다. 10살 때 입학한

스님은 그곳에서 을지문덕, 이순신 등 외부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위인들에 대해 공부 하며 애국심을 키워나갔다. 그러나 한일합방 이후 학교는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일본의 보통학교가 들어섰다. 태허스님의 할아버지는 손자를 학교에 보내는 대신 직접 한문을 가르쳤다.

그 무렵 대한제국 때 정위(正尉)를 지낸 백부가 스님의 집을 찾아왔다. 백부는 1907년 군대 해산 뒤 만주로 망명,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사립이었다. 백부로부터 독립군 얘기를 들으며 어린 스님은 자신도 독립운동에 가담할 것을 결심했다.

《혁명가들의 항일희상, 민음사 간》에 실린 스님의 회고

"독립군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만주 신학학교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집을 나왔다. 마침 집에서 땅을 판 돈이 있어 그 돈을 몰래 갖고 왔다. 집안 어른들께는 죄송했지만 독립을 위해 쓴다면 용서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집을 나온 스님은 만주로 향했다. 중국어를 몰랐던 그는 중국어를 안 쓰고 만주까지 가는 방법을 찾아 고민하다, 평양에서 원산까지 가서 다시 배를 타고 청진으로 건너가는 길을 택했다. 원산에 도착한 그는 뜻하지 않게 일본군에 붙잡혀 여관에 불려져 있게 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스님은 출가한다.

그가 원산에 도착했을 때가 마침 부처님오신 날이었다. 원산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서감사로 구경을 가고, 시내가 텅 빌 정도였다. 스님도 여관주인을 따라 서감사로 갔다. 다음날 새벽 산책하던 중 그는 스님을 한명 만났다. 여관주인에게 벗어날 심산으로 스님에게 말을 물었다.

"어보시오, 스님. 스님이 되고 싶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왜 출가하려 하느냐?"
"경전을 연구하려고요."

스님은 자신을 양평 용문사에서 왔다고 소개 하며 자신을 따라가면 출가할 수 있다고 했다. 스님은 그길로 용문사로 가서 출가 하고, 그곳에서 2년 6개월 정도 수학했다.

"그런데 내가 한문을 아니까 경전을 배우는 속도가 빨랐어. 흥미도 커지고, 그래서 2년 반쯤 초보 중노릇을 하는 모든 방법을 배웠지. 그리고

나니 나를 경기도 광릉의 봉선사로 보내 경전을 정식으로 배우게 하더군."

봉선사에서 3년 간 머물면서 스님은 경전을 공부하는 한편, 사찰의 사무도 맡아 처리 했다. 당시 봉선사 주지로 월초(月初) 거연(巨淵) 스님(1858~1934)이 주석하고 있었다.

스님은 월초스님에게 사미계를 받고, 1922년 4월8일 성월(淸月) 일전(一全)스님을 계사로, 월초스님을 존증아사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 때 받은 법명 '성숙'은 평생 그의 이름을 대신했다. 그곳에서 민족대표 33인인 손병희(1861~1922)와 만해스님(1879~1944)도 만나게 된다.



▲ 태허스님의 금강계첩

스님의 회상이다.

"노스님은 손병희와 막역한 사이였는데, 스님은 손 영감이 오면 나에게 시중을 들라고 했다. 그래서 그와 가까워졌다. 만해스님과 김법린(1899~1964)도 자주 만났는데 두 사람 모두 그 때 이름이 널리 나 있었다."

봉선사에 머물면서 손병희, 만해스님, 김법린 등과의 인연으로 스님도 3.1운동에 가담한다. 독립군이 되겠다고 집을 나선지 5년만의 일이다. 그는 봉선사 몇몇 스님들과 경기도 양주와 포천 지역에서 독립선언서를 돌리고, 사람을 모아 만세를 불렀다. 이 일로 일본경찰에 체포돼 서대문 감옥에서 2년간 옥고를 치러야 했다.

그가 석방돼 나올 무렵, 조선에는 사회주의

사상이 퍼져있었다. 만주, 상해, 시베리아에서 활동하던 운동가들이 속속 귀국해 비밀리에 사회주의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스님도 1922년 무산자(無産者)동맹회와 조선노동공제회에 가담했다.

"처음에는 그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는 마음에 가입했지만, 이 단체를 통해 사회주의운동에 발을 들이게 됐다"는 것이 스님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본경찰의 감시가 심해지자 1923년 김규하, 김복환, 김정안, 윤종목, 차응준스님 등 5명과 함께 중국 북경으로 건너갔다.

중국에서의 항일 투쟁

북경에 도착한 그는 북경민국대학에서 정치 경제학을 연구하는 한편, 장건상(張建相, 1882~1974), 양명(梁明), 장지락(張志樂, 1905~1938) 등과 함께 창일당(倉一黨)을 조직하고 《혁명》이란 잡지를 발행한다. 조선의열단에 가입하여 항일테러운동을 지도하던 그는 1926년 광둥으로 가 '광둥코뿔'에 참가했다. '광둥코뿔'의 실패 이후 상해로 돌아와 중국공산당과 연합하여 항일운동을 계속했다.

1936년 중국 각지의 동지를 모아 조선민족 해방동맹을 조직했고,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했다. 또 1938년에는 약산 김원봉(金元鳳, 1898~1958)과 함께

조선의용대를 조직, 지도위원 겸 정치부장을 겸임했다. 1942년 대한민국임시정부 내무차장에 취임 한 그는 1943년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귀국했다. 그러나 1946년 임정이 미군정 자문기관인 민주위원회에 참가하는 것을 반대해 임정을 떠났다.

좌우의 이념보다 민족의 해방이 우선

공산주의보다 민족해방을 우선에 뒀던 스님, 해방 이후에는 좌우로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애썼다. 3.1운동에 가담해 투옥되고,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해방되는 날까지 숨 가쁘게 투쟁해왔던 그에게 '해방된 조국이 준 선물은 미군정반대라는 죄목으로 내려진 6개월 금고형, 좌익인물이라는 낙인, 그리고 박해'였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혁신당의 리더로 활약해, 혁신계 인사로 낙인찍힌 그는 '반국가행위'를 저질렀다는 죄로 10개월간 감옥에서 지냈다. 그나마 환갑이 넘고, 임정의 국무위원을 지낸 독립유공자임이 참작돼 석방될 수 있었다. 이 때부터 그를 도와주던 손길도 끊어졌다. 정권의 눈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정신적, 경제적으론 힘들었던 그 때 윤허(耘虛)스님(1892~1980)은 가끔 쌀을 보내 스님의 생계를 도왔다. 말년에 천식으로 고생했던 그는 가난 때문에 변변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민족을 밝히던 별이 그렇게 사라졌다.

핍박받는 민중을 위해 독립운동에 나섰고,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사회주의자가 됐던 태허스님, 되돌아온 것은 가난과 탄압이었지만, 부정과 불의에 굴하지 않고 고집스레 자신의 길을 걸었다.

파란만장하고 고단한 삶 속에서 그가 꿈꾼 것은 독립, 통일, 민주화였고 이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 정부는 그가 죽은 지 10여년 후인 198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다. 그의 유해는 2004년에야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태허스님은 만해스님, 김법린과 마찬가지로 불교계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요, 정치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추모하는 이가 많지 않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민족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공양한 태허스님이 제대로 추모 받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자료제공= 운허 김성숙 기념 사업회 편집, 정리= 김종열 기자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건강하고 지혜롭고 예의바른
초록만 어린이들

“ 강남구 세곡동 아파트 사이에 있는 초록 어린이집은 설레는 마음으로 4월에 42명의 초록 친구들과 원장님, 5명의 교사들이 함께 사랑을 받고 나누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원훈처럼 건강한 어린이, 지혜로운 어린이, 예의바른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교사들은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아이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연 속에 있는 초록 어린이집에는 제일 막내인 귀염둥이 초록반 친구들, 어린 꿈을 키워나가는 새싹 같은 정진반 친구들과 매일 매일 씩씩한 사랑과 서로 아껴주는 예쁜 마음이 가득한 진리반 친구들 그리고 가장 큰 형님이요 백가지 상상과 천가지 꿈을 가진 지혜반 친구들이 있습니다.....(생략) ”

- <위드다라마> 2013년 1월호 중에서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강남구 현동로 590길 63 리엔라제 5단지 아파트 제1동 101호 문의: 02-445-2326

원망성취(願望成就)의
보배구슬을 지닌 보살

고통타파(苦痛打破)의
지혜법륜을 지닌 보살

여의륜보살은 관세음보살의 변화관음으로 육관음(六觀音)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 보살의 이름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뜻하는 바를 이루어지게 하는 보살로서 여의주(如意珠)와 법의 수레바퀴, 즉 법륜(法輪)을 들고 있는 보살'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Cinta mani cakra(친타마니 차크라)'라고 하는데 이를 직역하면 '여의(如意) 보주(寶珠) 법륜(法輪)'이 되며, 다시 줄여서 '여의륜(如意輪)'이라 합니다.

그 뜻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친타'(Cinta)는 사유(思惟)와 소원(所願), 원망(願望)을 뜻하고, '마니(mani)'는 진귀한 구슬, 보배구슬을, '차크라(cakra)'는 원(圓), 바퀴와 영역을 뜻합니다. 여기서 소원과 원망(所願)을 의미하는 '친타(Cinta)'와 진귀한 보물을 뜻하는 '마니(mani)'라는 두 단어가 합해 '바라는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보배구슬'이라는 뜻의 '여의보주(如意寶珠)'가 되고, '번뇌를 타파하기 위해 진리를 굴린다'는 의미의 진리 수레바퀴, 즉 '법륜(法輪)'인 '차크라(cakra)'와 다시 결합해 '여의륜(如意輪)'이 된 것입니다. 즉 친타마니(Cintamani)의 '여의보주'와 차크라(cakra)의 '법륜'을 합해 '여의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의륜관음이라고 하면, '여의보주'와 '법륜'을 지니고 중생들에게 자비와 지혜를 베풀어 모든 고통을 타파하고 중생들의 소원을 뜻대로 들어주는 보살을 가리킵니다. 그런 점에서 여의륜보살은 '여의보주'와 '법륜'으로 상징되는 보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불보살이 지니고 있는 것을 지물(持物)이라고 하는데, 여의륜보살이 지니고 있는 지물(持物)은 '여의보주'와 '법륜'입니다. 그 지물은 불보살의 상징물이자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의 법구(法具)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의륜보살의 '여의보주'는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지물(持物)이고, 진리의 수레바퀴인 '법륜'은 지혜를 통하여 고통을 타파시켜주는 지물(持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수레바퀴인 법륜(法輪)을 달리 보전(寶輪)이라고도 합니다. 보배와 같은 수레바퀴이란 뜻인데, 어찌하여 보배같은 수레바퀴인가 하면, 부처님의 말씀은 진리요 진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배와 같은 존재이므로 부처님의 말씀은 곧 보배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은 온세상에 널리 펼친다. 법을 널리 전한다는 뜻에서 '수레바퀴'에 비유하고 이를 '법륜'이라고 하였으니 곧 '법륜(法輪)'이요, '보배로운 부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뜻에서 '보전(寶輪)'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또 밀교에서는 보배의 구슬과 수레바퀴를 지니고 있는 여의륜보살을 달리 '지보금강보살(持寶金剛菩薩)'이라고 표현합니다. 밀교에서 부르는 불보살의 이름, 즉 명호(名號)를 '밀호(密號)'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 여의륜보살의 밀호를 '지보금강보살(持寶金剛菩薩)'이라 한 것은 바로 '여의보주'와 '법륜, 보전', 즉 보배로운 지물을 지니고 있는 보살이기 때문에 '지보(持寶)'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항상 밀교에서는 모든 불보살에 '금강'이라는 용어를 붙이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의륜보살의 지물(持物) 가운데 하나인 '여의보주'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여의보주는 복덕(福德)과 원망성취(願望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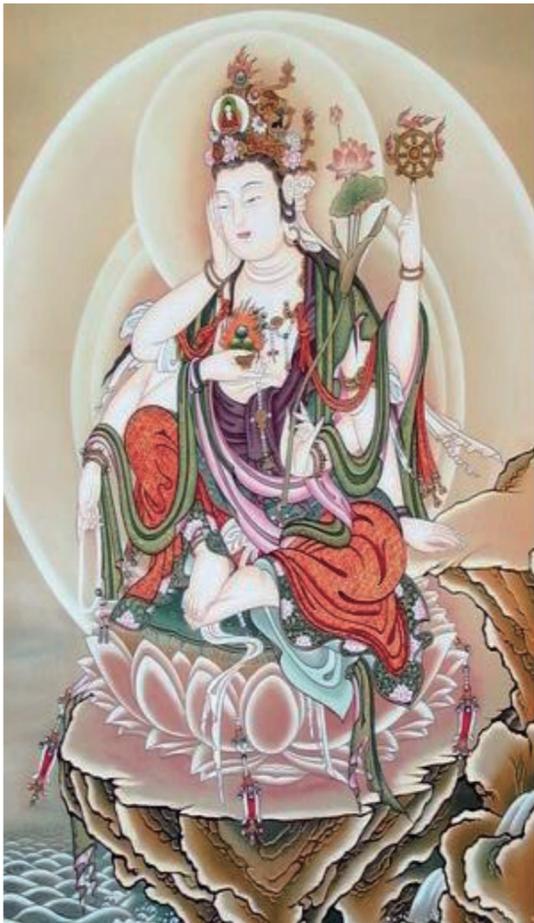
<밀교연재>

법경 정사가 전하는
밀교의 불보살 이야기 (11)

여의륜관음보살 (如意輪觀音菩薩)



법경 정사



▲ 여의륜관음보살도(오헌(梧軒) 박만수(朴萬壽)의 작품집 중에)



▲ 일본 제호사의 여의륜 관음보살상

취)를 나타내며 원하고 바라는 것을 성취하게 해 주는 공덕의 보배구슬입니다.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이 여의봉(如意棒)을 들고 재주를 부리는 장면을 상상하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 하늘로 승천(昇天)하는 용(龍)이 입에 물고 있는 구슬이 바로 여의주(如意珠)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보배구슬입니다.

여의륜보살의 여의주는 각종 보물과 의복, 맛있는 음식을 내놓으며, 중생들의 병고(病苦)를 없애고, 탁한 마음을 맑게 하고 허물을 제거하며 일체의 악(惡)을 물리친다고 합니다. 탁한 것을 맑게 한다고 하니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 정화수(淨化水)의 기능을 가진 게르마늄의 구슬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다음의 지물(持物)인 '진리의 수레바퀴, 법륜(法輪)'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법륜(法輪)은 바로 석가모니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석가모니께서 설법하는 것을 '법륜을 돌린다'고 하여 이를 전법륜(轉法輪)이라 표현합니다. 이는 부처님의 법을 전륜왕(轉輪王)의 수레바퀴 모양의 고대 인도의 무기인 윤보(輪寶)에 비유한 것으로, 세속의 왕인 전륜왕이 윤

보를 돌려 천하를 통일하는 것과 같이, 깨달음의 왕인 석가모니는 법륜(法輪)을 돌려 삼계(三界)를 구제하신다는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또 불교에서 윤(輪)은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세 가지의 비유로 설명하는데, 그 한 가지는 원만(圓滿)의 뜻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은 원만해 결합이 없는 것을 윤의 원만한 모양에 비유하며, 둘째는 타파(打破)의 뜻으로, 석가의 교법은 중생의 망견(妄見)을 타파하는 것을 윤을 돌려 어떤 물건을 부수뜨리는 것에 비유한 말이고, 셋째는 전전(展轉)의 뜻으로, 석가의 교법이 전전(轉轉)하여 어느 곳이나 이르러 지 않는 곳이 없는 것에 비유한 말입니다. 이러한 법륜은 만자(卍字)와 함께 불법의 상징으로 사용되었고, 불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조각이나 회화에서 보리수(菩提樹)나 불탑 등과 함께 부처의 형상을 대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의륜보살이 지니고 있는 '법륜'은 바로 지혜의 공덕 즉, 지덕(智德)을 나타냅니다. 그 지덕이란 바로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말해서 모든 법에 통달하여 잃고 얻음과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의 작용으로서, 미혹을 소멸하고 보리(菩提)를 성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리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지혜에서 얻어집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지혜를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우리의 고통과 번뇌를 없애줍니다. 마치 명약(名藥)이 환자의 통증을 없애주는 것과 같습니

다. 그 명약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 번뇌는 모두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은 바로 지혜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수행은 지혜를 완성시켜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근심, 걱정, 욕망, 불안, 초조 등의 불선(不善)한 감정들을 없애는 길은 바로 지혜를 체득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의 힘을 여의륜보살께서는 법륜(法輪)을 통해 우리 중생들에게 나누어주고 계십니다. 법륜은 곧 내 자신이 '진리의 수레바퀴'가 되어 생활화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가르침은 부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라는 것으로 그 실천을 통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없앨 수 있고 결국에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차난다가 번역한 『여의륜다라니신주경(如意輪多羅尼神呪經)』에 따르면, 여의륜관음의 공덕은 세간(世間)과 출세간(出世間)의 재화(財貨)를 모두 얻게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간의 재화란 금(金) 등의 보석을 말하고, 출세간의 재화란 복덕과 지혜를 말합니다. 금은 등의 보석은 물질적인 것으로 이것은 여의보주(如意寶珠)로써 얻어지고, 출세간의 재화는 비물질적인 것으로 법륜(法輪)을 통해 얻어진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나 마음이 허(虛)한 사람들은 여의륜보살을 친견(親見)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라 생각합니다. 중생들의 서원 가운데 특히 '연수(延壽)와 안산(安産), 제재난(除災難)의 서원에 공덕이 크다 하

니 이 보살의 진언을 수지 독송하는 것도 공덕을 성취하기 위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 진언을 하루에 108번씩 일주간 외우면 무수한 공덕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여의륜보살의 진언은 '옴 파드마 친타마니 즈발라 흠'이라고 합니다. 진언의 뜻은 '옴, 연화(蓮華)와 여의보주(如意寶珠)를 지닌 자여, 빛나라 흠입니다.

육비상(六臂像)은 육도중생(六道衆生)의 구제와 육바라밀의 실천을 상징함

중생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여의륜보살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요? 원래 이 보살은 두 개의 팔을 지닌 이비상(二臂像)이었으나 밀교에 와서 여섯 개의 팔을 지닌 육비상(六臂像)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육비상은 중생들의 죄업장을 소멸하고 뜻하는 바를 모두 만족시켜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팔은 돌인 경우도 있고, 빛이나 여섯, 많은 경우는 여덟 개의 팔도 있으나 일반적인 것은 육비상(六臂像)으로 육비는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天)을 헤매는 육도(六道)의 중생을 상징하기도 하고, 보살의 수행법인 육바라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의륜보살의 색신(色身)은 황금색이며 머리에 보관(寶冠)을 쓰고 있고 반가부좌로 붉은 연꽃 위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서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앉아 있는 좌상(坐像)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얼굴은 마치 반가사유(반가사유)의 금동보살상처럼 오른쪽으로 돌려서 아래로 응시하듯 내려다 보고 오른손을 턱에 괴고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에 빠져 있는 모습의 의미를 여의륜보살의 이름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친타(Cinta)라는 말에는 '바란다, 원한다'라는 소원(所願)과 원망(願望)의 뜻이 있고, 또 '하는 바와 같이'라는 여의(如意)의 뜻이 있는데, 이외에도 '생각한다'는 사유(思惟)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륜보살이 금동반가사유상처럼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思惟)는 오로지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관음보살의 지극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의륜보살의 여섯 개의 팔 중 오른쪽의 첫 번째 손은 사유(思惟)의 형(形)이고, 두 번째는 여의보주(如意寶珠)를 들고, 세 번째는 염주(念珠)를 들고 있습니다. 왼손의 첫 번째 손은 광명산(光明山)을 누르고 있고, 두 번째는 개부연화(開敷蓮華)를 들고 있고, 세 번째는 여의보륜(如意寶輪)을 들고 있습니다. 모두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법구(法具)요 지물(持物)들로 특히 여의보주와 법륜은 우리 중생들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는 진귀한 보배구슬이요, 고통과 번뇌를 타파하는 지혜의 법륜(法輪)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의륜관음은 일본이나 중국의 밀교 존상과는 달리 보편적인 관음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불상이나 불화 또는 조각의 경우를 보면 2비상(二臂像)이나 6비상(六臂像)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의륜관음보살상이 강원도 신흥사의 통일대불 내원법당과 낙산사 보타전에 모셔져 있습니다.

총지중에서는 여의륜보살을 모시지는 않지만 여의보주(如意寶珠)와 관련된 진언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 진언이 관세음보살의 42수 진언 가운데 하나인 '여의보주수진언(如意寶珠手眞言)'입니다. 이 진언의 결인과 수법(修法)은 종단의 스승님의 경우에만 비밀전수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교도가정의 경계해탈을 서원하며 매월 월초불공과 49일 상하반기 진호국가불공기간에 매일 아침마다 행하고 있습니다. 다음호에서 마두관음보살(馬頭觀音菩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우리시조** 읽는

『**봄 산에 녹 녹이는 바람**』

지은이: 우 탁



봄 산에 녹 녹이는 바람

문득 불고 간데없네

잠깐 빌려다가 머리위에 불리고저

귀밑에 해 목은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지은이 우탁은 고려 말 성리학자이다. 1262년 태어나고 본관은 단양(丹陽)이다. 호는 백운(白雲), 단암(丹巖), 역동선생(易東先生)이라고도 한다. 과거에 급제하여 영해사록(寧海司錄)으로 부임했을 때 영해지방의 사람들이 팔령신(八鈴神)을 극진히 섬기는 등 폐해가 심하자 신사(神祠)를 철폐했다. 1308년(충선왕 즉위) 감찰규정(監察糾正)으로 있을 때, 충선왕이 부왕의 후궁인 숙창원비(淑昌院妃)와 밀통하자 죽음을 무릅쓰고 간언했다. 그 뒤 관직에서 물러나 향리인 예안에서 학문에 전념했다. 충숙왕이 여러 차례 불러, 다시 벼슬길에 올라 성균제주(成均祭酒)가 되었다. 그는

합리적이고 사변적인 학자였다. 원나라를 통해 정주학(程朱學)이 전래되었는데, 특히 정이(程頤)가 주석한 주역(周易)의 정전(程傳)을 터득해 학생들에게 가르침으로써 후학들이 그를 종사(宗師)로 삼았다 한다. 이 시조의 '머리 위의 해목은 서리'는 나이 들어 생기는 백발이다. 봄바람에 환눈이 녹듯이 흰머리도 녹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다시금 젊음을 되찾고 싶다는 부질없는 소망을 내비친다. 봄을 맞아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자연을 바라보며 덧없는 세월이 지나간 젊음을 아쉬워하며 봄바람에 자신의 몸도 소생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듯하다.

편집 정리= 김중열 기자

VISUAL
불교총전
총 45화



글/그림 정수일
octagonp@naver.com

화를 참지 못 하면 큰 재앙을 입는다



내용참조: "불교총전" 덕행편 440p-14

유물로 보는 **비로자나불**

금동비로자나불좌상 (金銅毘盧遮那佛坐像)
시 대(時代): 통일신라(統一新羅) (8세기 경)
재 질: 금동제(金銅製) 크기: 높이 12.0cm
소 장 기 관: 국립중앙박물관



통일신라시대의 불교 조각에서는 흔하지 않은 소형의 금동비로자나불좌상이다. 가사(혹은:대의)를 판단우견식으로 입고 그 끝을 오른쪽 어깨에 반달형으로 살짝 걸친 착의방식은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통일신라 불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가사(혹은:대의) 아랫부분이 두 다리를 덮고 그 밑으로 내려오는 '상현좌' 형식을 갖추었다. 머리에는 바둑판무늬를 새겨 나발을 표현하였다. 상의 뒷면에는 주조 구멍이 보이지 않고 광배를 꽂았던 홈 등과 엉덩이에 하나씩 나와 있다. 높은 육계와 퉁퉁한 얼굴, 탄력감 있는 신체의 표현, 입체적인 옷주름의 새김에서 제작시기가 9세기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 산청 내원사의 766년경 석남암사(石南巖寺)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연대를 알 수 있는 현존 최고의 부처형 지권인 비로자나불상과 기법이 유사해 보인다. 이 금동비로자나불좌상도 비슷한 시기 통일신라 불교조각의 특징을 보여주는 귀중한 불교문화재이다. (사진제공=국립중앙박물관)

불교총지중 교도들에 한해 10~20% 할인

림플란트치과
LIMPLANT DENTAL CLINIC

원장 **임경민**
미국 보스턴대학교 임플란트학과 연수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 수료(임플란트과정)

치아교정, 심미보철, 임플란트, 치아미백, 사랑니발치, 스케일링, 잇몸치료, 충치치료

▶ 진료시간
평 일 AM 09:00 ~ PM 06:00
토 요 일 AM 09:00 ~ PM 01:00
점심시간 PM 01:00 ~ PM 02:00
공 휴 일 휴 진

▶ 상담전화 **02.967.2228**

림플란트치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132 경동 유니온빌딩 6층

가족의 마음으로 어려운 법률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변호사 하동길
종합법률사무소 상담전화 **02.596.4600**

부동산, 세무, 형사, 민사, 가사, 특히 전문 개인회생, 파산 특별 상담

변호사 하동길 종합법률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1715-3 동구빌딩 201호